

시론

AX 시대, 회계 세무를 통한 AI-ERP 기반 도시 광주로



신준우

광주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교수

최근 저널비즈니스의 'ONE AI 세법도우미'와 'WEHAGO T AI Edition', 그리고 LG CNS SAP 협력 사례는 AI가 단순 에이전트를 넘어 기업 운영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 AI가 반복 업무 자동화나 질의응답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세법 해석과 세무신고 수행, 나아가 AI 기반 ERP까지 포괄하는 'AX(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업무 효율성 개선을 넘어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와 업무 흐름, 더 나아가 정책 의사결정 방식까지 변화시키는 구조적 전환이다.

이러한 흐름은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AI 중심도시 전략과도 긴밀히 맞닿아 있다. 광주는 AI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기업 유치, 산업 융합을 핵심 축으로 삼고 있으나, 정책의 실질적 성과는 기술 보급 자체가 아니라 실제 산업과 행정 시스템에 AI가 얼마나 깊이 내재화되는지에 달려 있다.

즉, 'AI를 보유한 도시'가 아니라 'AI로 운영되는 도시'로의 전환이 정책의 본질적 목표가 돼야 한다. 이러한 전환의 출발점으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영역이 바로

회계·세무 분야다. 현대 세법 체계는 개별 법률을 중심으로 시행령, 예규, 판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단순 검색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동일한 거래라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며, 실무자는 방대한 법령 검토와 경험적 판단에 의존해 왔다.

이로 인해 세무 리스크와 업무 비효율이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가 고착화돼 왔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 비중이 높은 지역 경제에서는 이러한 비효율이 기업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진다.

AI 기반 세무 솔루션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법령, 판례, 예규를 통합적으로 분석해 맥락 중심의 해석을 제공하고, 전표 데이터와 신고 일정에 기반해 업무를 사전에 인식, 신고 초안을 자동 생성하는 방식은 업무의 출발점을 인간에서 AI로 이동시키는 변화를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세무 실무자의 역할은 단순 수행자에서 검증자이자 의사결정자로 재편된다. 이는 단순한 자동화가 아니라 업무 프로세스 전반의 재설계이며, 회계 정보의 신뢰성과 내부통제 수준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변화는 광주 지역 경제에도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갖는다. 광주는 고령 사업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자영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세무 AI는 신고 정확성을 높이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2026년 세법 개정이 지향하는 세입 기반 정상화와 과세 형평성 확보는 '정확한 신고'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AI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핵심 인프라로 기능한다. 나아가 AI 기반 세무 시스템은 지자체의 세수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흐름은 ERP 영역으로 확장되며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촉발한다. SAP의 '비즈니스 AI'와 LG CNS의 'AX on ERP' 전략은 재무, 생산, 공급망 등 기업 운영 전반에 AI를 내재화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구조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ERP를 단순한 기록 시스템에서 판단과 실행을 지원하는 운영 체제로 전환시키는 시도이며, 광주의 자동차·에너지·제조 산업과 결합할 경우 산업 경쟁력의 질적 도약을 이끌 수 있다.

따라서 광주 AI 정책 역시 단순한 기술 보급을 넘어 ERP와 결합된 AX 구조, 즉 시스템 통합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는 산업별 특성에 맞는 AI 적용 모델을 구축하고, 데이터·업무·의사결정 구조를 통합적으로 재설계하는 정책 접근을 요구한다.

결국 회계 세무 AI에서 시작된 변화는 AI 기반 ERP를 거쳐 기업 운영과 도시 행정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금 광주는 AI를 도입하는 도시에서 머물 것인가, 아니면 AI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도시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기고

온실가스, 이는 만큼 줄인다-탄소중립 위한 정량적 제언



오길영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관리과장 공학박사

우리는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 들었을 때 비로소 평소의 식단을 점검하고 운동화 끈을 동여맨다. 막연한 걱정보다 눈앞에 정교하게 찍힌 수치가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법이다. 기후 위기도 이와 다르지 않다.

지구가 보내는 경고음을 추상적인 두려움이 아닌 우리 삶의 구체적인 '성적표'로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실천이 시작된다.

특히 가정에서의 노력은 더욱 구체적이어야 한다. 세탁기 온도를 찬물(20℃ 이하)로 낮추면 연간 40kg, 냉장실을 70% 이하로 유지해 냉기 순환을 돕는 것만으로도 연간 12kg이 추가로 감축된다.

취침 전 설탕박스 플러그를 뽑으면 연간 30kg, 비데를 절전 모드로 설정하는 작은 수고도 연간 15kg의 감축으로 돌아온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두 모이면 1인당 연간 약 612kg, 즉 개인 배출량의 약 46%를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 줄일 수 있다.

전남광주 30만명이 함께한다면 연간 약 196만t의 온실가스를 지울 수 있다. 이 수치는 결코 가볍지 않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전남도의 이행 계획 중 가정과 상업건물이 담당하는 비산업 부문 목표치의 대부분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수치이며 동시에

지역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탄소 발자국을 정확히 인식할 때 1인당 13.4이라는 숫자는 '책임의 무게'가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희망의 수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가계부를 쓸 때 폰돈을 아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하루의 일과를 탄소배출 시작으로 바라보면서 생활속 불필요한 탄소 지출을 줄여보자.

아침 샤워 시간을 단 5분만 줄여도 연간 35kg의 탄소가 사라지며,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출근길은 연간 445kg을 줄여준다. 점심 식사로 지역의 로컬 푸드를 선택하면 연간 33kg,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장당 3g의 탄소 발생을 즉각 차단할 수 있다.

특히 가정에서의 노력은 더욱 구체적이어야 한다. 세탁기 온도를 찬물(20℃ 이하)로 낮추면 연간 40kg, 냉장실을 70% 이하로 유지해 냉기 순환을 돕는 것만으로도 연간 12kg이 추가로 감축된다.

취침 전 설탕박스 플러그를 뽑으면 연간 30kg, 비데를 절전 모드로 설정하는 작은 수고도 연간 15kg의 감축으로 돌아온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두 모이면 1인당 연간 약 612kg, 즉 개인 배출량의 약 46%를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 줄일 수 있다.

전남광주 30만명이 함께한다면 연간 약 196만t의 온실가스를 지울 수 있다. 이 수치는 결코 가볍지 않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전남도의 이행 계획 중 가정과 상업건물이 담당하는 비산업 부문 목표치의 대부분을 단숨에 해결할 수 있는 수치이며 동시에

에 광주시가 매년 달성해야 할 연간 감축분량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러한 실천 에너지는 전남도가 남해안 남권권과 함께 추진 중인 '2023년 제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를 위한 가장 강력한 정당성이자 경이로운 과업이 될 것이다.

최근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시각지대는 바로 디지털 공간이다.

책상 위의 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스마트폰 속 데이터 먼지는 보이지 않기에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스텝 메일 1통은 서버 저장 에너지를 소비하며 약 4g의 탄소를 배출한다. 동영상 화질을 고화질에서 표준화질로 낮추면 시간당 32kg이 줄어들며 불필요한 클라우드 데이터 1GB를 삭제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11kg의 탄소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스트리밍 영상을 즐기는 때 순간에도 멈춰 돌아가는 데이터 센터의 서버를 생각한다면 디지털 생활에서도 더욱 의식적인 탄소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1인당 13.4이라는 숫자를 마주하는 것은 결코 두려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목표 지점을 확인하는 건강한 진단 과정이다.

변화는 멀리 있지 않다. 오늘 밤 거실의 설탕박스 플러그를 뽑고 냉장고 속 불필요한 식재료를 정리하는 그 작은 손길이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특히 4월20일부터 시작되는 제18회 기후주간을 맞아 여수시 일원에서 이어질 탄소중립 실천 선언들이 일시적인 행사를 넘어 일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정착되길 기대해 본다.

社說

첫날부터 중단된 무안 제주항공 참사 유해 재수색

12·29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 유해 재수색 작업이 실시됐지만 또 중대 허점이 드러났다. 유가족들은 "구체적인 매뉴얼조차 합의하지 않고 시작했다. 이해할 수 없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급기야 첫날 오후부터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다.

정부 당국의 초기 수습 부실로 이뤄진 정밀 조사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철저히 임해달라고 지시했었다. 그런데 여객기 출몰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인근 핵심 수색 구역의 토양이 물을 머금은 축축한 상태여서 체에 거르는 방식으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서둘러 중단했다. 역시 속도전에 초점을 맞춘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마지막까지 단 한 점이라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했는지 싶다.

국무총리실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활주로의 두둑, 외곽 등 2만6천776㎡ 규모의 면적을 다음달 말까지 재차 수색할 예정이다. 경찰과 군인, 소방인력 뿐 아니라 항철위, 전남도, 무안군 등 관계기관에 유족도 참여했다. 지표면 위 주었던 것과 달리 이번엔 최대 30cm 깊이로 부지

를 파내 파묻혀 있는 상태에 역점을 뒀으나 출발부터 빠거터거렸다. 현장 지휘체계 부재와 준비미흡, 수색 방식 등을 둘러싼 논란을 이해하기 어렵다.

앞서 잔해 조사 과정에서는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 115점을 수습했고, 이 중 74점이 희생자 41명의 유해인 것으로 확인했다. 유류품도 대형포대 기준 79무음에 달했고, 휴대전화 6점 등이 발견됐다. 이날에도 활주로 끝 담벼락 인근에서 찢은 조각으로 보이는 물체를 찾아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탑승객 179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1년이 훌쩍 지났지만 그날에 여전히 멈춰 있다. 공식 조사 결과 발표는 이뤄지지 않고 진상 규명은 지연되고 있다. 아직까지 방치된 유해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당국은 유족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고 컨트론타워를 정비하며 어렵사리 다시 재수색에 들어갔다.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묻어야 했다. 더 이상 분통을 터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위축된 소비 촉진 캠페인 '동행축제'에 관심과 참여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해 5월10일까지 한달간 펼쳐지는 2026년 상반기 동행축제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규모 소비촉진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20개 판매 채널과 3만3천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해 할인과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에 따라 신용하는 상인들은 가게 매출에 큰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축제는 특히 지역과 연계한 오프라인 행사가 주목된다. 중기부는 공항 및 철도에 웰컴센터를 설치해 K-컬처 열풍으로 증가하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지역 방문을 유도하고 소비로 이어지도록 전국 50개 축제와 연계하고, 대형 유통사와 협력해 우수 상품 판매전과 이벤트를 준비했다. 광주시도 대대적인 캠페인에 나섰다. 먼저 광주은행과 손잡고 4월11일부터 5월10일까지 상생카드로 누적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추첨을 통해 600명의 시민에게 상생카드(5만 원권 100명, 3만 원권 500명)를 지급한다.

또 5월1-10일 광주공공배달업인 '뽕겨요'와 '위메프오'에서는 3회에 걸쳐 이용자 7천명에게

할인쿠폰(3천 원)을 선착순 제공한다. 4월23-25일 '제4회 양동통떡축제', 4월24일 '남광주시장 봄바다-아(夜)축제', 5월2일 '충장로온페스타', 5월10일 1913송정역시장 '난장콘서트'가 차례로 열려 시민들로 활기를 띠 전망이다. 동행축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내수 활성화를 목표로 여객기 추진되고 있다. 정부와 광주시, 민간이 합심해 중요한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광주는 상생카드 사용을 통해 혜택을 챙기고, 곳곳의 축제에 참여해 힘을 보태주길 바라고 있다.

중동위기, 경기침체로 인해 산업계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물가와 환율이 오르면서 국민 생활에도 각-각집 파급되는 중이다. 사태가 장기화될 시 적잖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효적 지원이 절실하다. 중앙-지방정부가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할 때다.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지난 주말 공식 시작된 동행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골목상권의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한다.

그래픽 뉴스

Graphic news section with a map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ext about US military movements in the Yellow Sea. Title: 미국, 호르무즈 '역봉쇄' 시작. Content: 미국이 미 동부시간 1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3일 오후 11시)를 기해, 세계 원유·가스 물동량의 20% 가량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중심으로 한 대(對)이란 해상 봉쇄를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해군의 대이란 해상봉쇄가 "오전 10시 정각부터 시작됐다"고 확인했다. 미군은 이번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15척 이상의 군함을 현지에서 배치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이란 해군 15척의 선박이 완전히 파괴돼 바다에 가라앉았다"며 "우리가 타격을 준 것은 것은 우리 '고속 공격정'이라고 밝힌 뒤 '이들 배 중 어느 하나라도 봉쇄(봉쇄 대상 해역)에 가까이 온다면 그들은 즉각 제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지난 11-12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중전 협상이 결렬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던진 승부수다. /연합뉴스

독자투고

'악물운전' 위험성 경각심 가져야

최근 악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악물운전'의 위험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악물운전은 갑각약, 수면제, 진통제 등 일부 악물을 복용한 후 졸림, 어지러움,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약 처방 구입 시 의사 또는 약사에게 문의를 하고 안내를 받아야 하며, 약 부위에 졸음운전, 운전주의 금지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일 악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

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측정 불응할 때도 악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악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의 주의와 함께 사회적인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 또 악물의 부작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악물 복용 후 운전의 위험성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악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곧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시작점이다. 운전 전 악물 복용했다면 잠시 운전을 미루는 작은 선택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재복·고흥경찰서 읍내파출소)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부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에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1)기 *구로권 15,000원 1부 800원